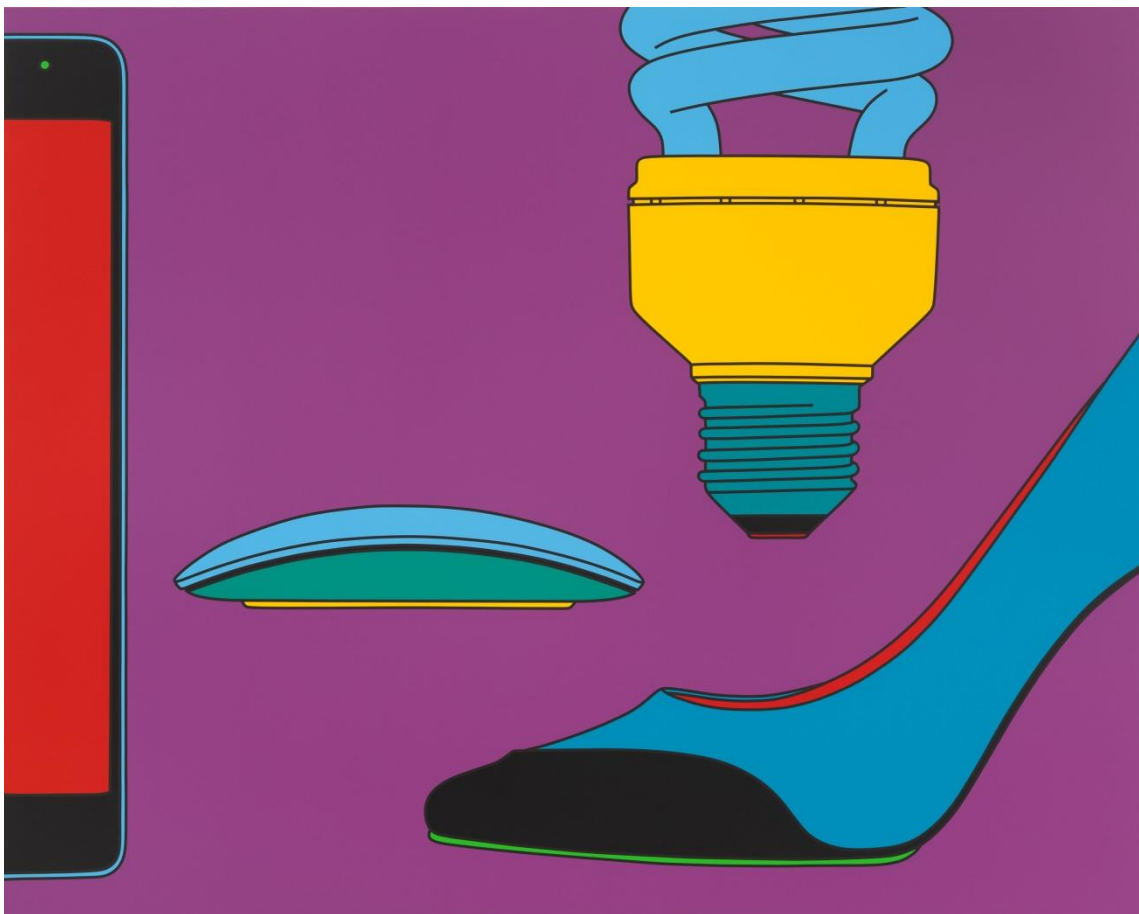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Michael Craig-Martin

*All in All*

2017. 9. 21. 목 – 2017. 11. 5. 일 | 갤러리현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4 / T. 2287-3500)



*Commonplace (with mouse)*, 2017, Acrylic on aluminium, 200x250cm

<흔한 일상 (마우스와 함께)>, 2017, 알루미늄에 아크릴, 200x250cm

© Michael Craig-Martin. Courtesy the artist and Gagosian

전시문의  
보도관련문의  
[갤러리현대] –

갤러리현대 (02-2287-3500) [www.galleryhyundai.com](http://www.galleryhyundai.com)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ID: galleryhyundai2 / PW: 3500

[9월 전시\_Michael Craig-Martin]\_폴더 안 자료 참조

기획팀 고은나래 대리 010-9496-8956 / 02-2287-3524

이정은 대리 010-9045-7315 / 02-2287-3540

**<전시 정보>**

**전 시 명:**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개인전 《All in All》

**전시장소:** 갤러리현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4)

**전시기간:** 2017. 9. 21(목) – 11. 5(일)

**전시작품:** 회화 30여점

**<전시 소개>****영국 개념미술의 거장, yBa의 대부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개인전****5년 만에 개최되는 갤러리현대에서의 두 번째 개인전****신작 포함 총 30여 점의 작품 선보여**

갤러리현대에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영국 개념미술의 거장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Michael Craig-Martin, b. 1941)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All in All》은 2015년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 (Serpentine Gallery)에서 열린 회고전에 이어 개최되는 작가의 대규모 개인전이자,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갤러리현대에서의 두 번째 개인전이다. 전시장은 작가의 근작부터 2017년 전시를 위해 제작된 신작까지 총 30여 점의 회화 작품으로 채워진다.

**평범한 일상과 예술의 경계선에 대한 탐구****친숙한 사물의 단순화된 이미지, 낯선 결합과 관련 없는 색의 병치**

‘예술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것이다. 예술은 어느 것도 새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미 주위에 있는 것을 다룰 뿐이다.’  
-작가의 말 중에서

일상과 예술의 경계선에 대한 탐구는 마이클 크레이그-마틴의 작품 속 주요 소재이다. 1970년대 초 크레이그-마틴의 작업이 우유병, 물컵 등 일상의 오브제들을 작가의 개입을 통해 예술로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작품 세계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는 1970년대 말 실제 사물들은 사라지고, 작품은 간결한 선과 이미지로 단순화된다. 1980년대 이후 이미지들은 색면과 결합됨과 동시에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지며 압축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작가는 사물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만들거나 낯설게 배치한다. 회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990년대 작가의 색면에 대한 관심은 극대화되며, 작품 속 색채는 더욱 밝고 강렬해진다. 더불어 작가는 일상적 사물을 가져오기보다는 사물이 존재하는 공간 안으로 직접 침투해 일상을 전혀 다른 것으로 변모시키는 작업에 몰두하며, 이와 같은 작업은 이후의 대형 벽화 작업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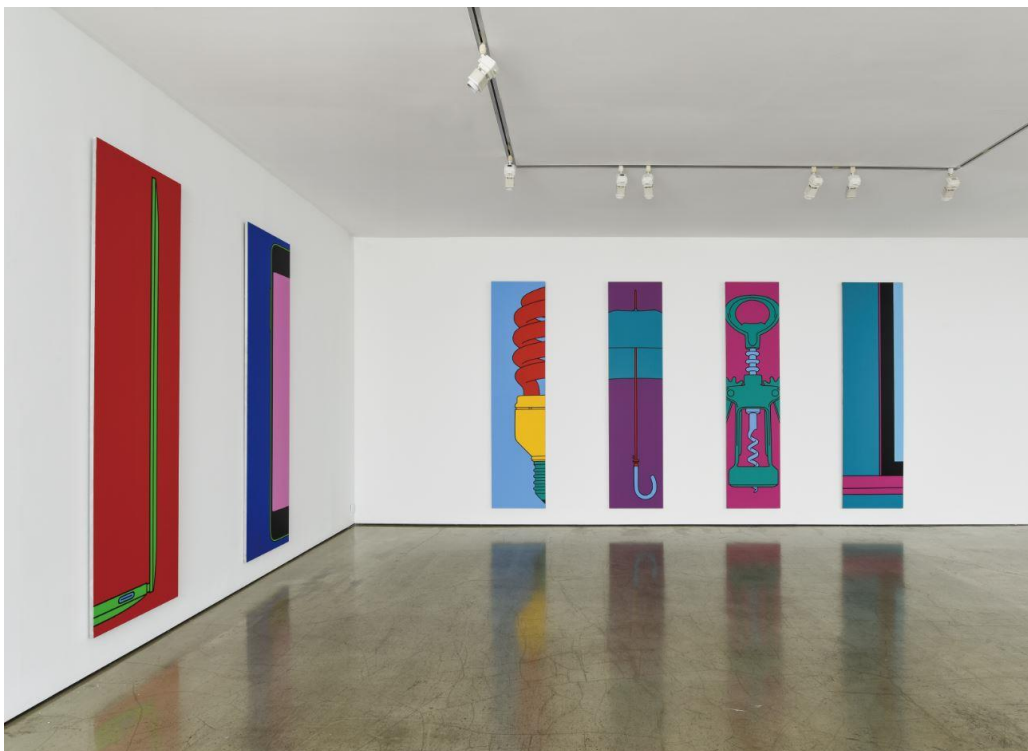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동시대적 오브제의 등장****사물의 과감한 클로즈업, 새로운 포맷의 신작 선보여****50여 년 작품세계의 집대성 - “결국”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이번 전시는 아이폰, USB, 노트북, 무선 마우스, 절전 전구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시대의 소비문화를 반영하는 동시대적 오브제들의 단순화된 이미지와 전혀 관련 없는 색의 병치로 이루어진 크레이그-마틴 특유의 화면들로 구성된다. 작품 속 크레이그-마틴의 오브제들은 그 자체의 의미는 배제된 채 선, 면, 색과 같은 미술의 기본 요소로 사용되며, 선명한 색들이 주는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은 관람자를 감각적 체험에 빠져들게 한다. 다양한 신작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높이 250cm에 달하는 새로운 포맷의 세로 작품들과 함께 실제로 크기가 작은 사물들을 극도로 클로즈업한 작품들이 등장한다. 메모리 스틱, 차량 운전대, 코르크 마개뽑이, 선글라스 등은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촬영기법처럼 사물의 끝을 잘라버리고 몸통만 보여주는 파편들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작가의 작품은 전통적인 회화의 언어를 해체함과 동시에 개인의 내재된 경험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바라보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디자인에는 관심이 없어요, 매일 보는 평범한 물건들에 대한 소비자적 관점 같은 것에도 관심 없습니다. 그저 색과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죠. 사물이 아주 간단하고 투명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작가의 말 중에서

《All in All》은 평생 예술과 일상 사이에서 고민하며 대중과 소통하려 했던 크레이그-마틴의 성찰이 발현된 결과물로, 작가가 지난 50여 년간 관심을 가졌던 흔한 사물, 추상적 색면, 드로잉적인 선의 결합이 하나의 화면에서 이루어지며 그가 작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질문을 드러낸다. 단순 명료한 방식으로 표현된 오브제는 관람자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그 틈 속에서 주체적 해석을 유도한다. 이번 전시는 영국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면서도 평생토록 자신의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 실험을 멈추지 않는 대가의 예술혼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ll in All》 설치 전경, 2017 (갤러리현대 제공)

## &lt;작가 소개&gt;

영국 현대미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여한 핵심 인물2001년 대영제국 훈장에(CBE) 이어, 2016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수여

‘나는 미국인도 아니고 아일랜드인도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다. 내 고향은 영국이고, 나는 아일랜드 출신이며 문화적으로는 미국인이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편하기도 하고 동시에 불편하기도 하다.’

-작가의 말 중에서



1941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마이클 크레이그-마틴은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며 당시 화단을 주도하였던 개념미술, 미니멀리즘, 팝아트 (1960년대 등장한 미국의 새로운 미술 사조) 등 전례 없이 왕성한 창조정신이 실험되는 현대미술의 전성기를 직접 경험하며 작업을 시작하였다. 1966년 영국으로 이주한 작가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런던 골드스미스대학(Goldsmith College)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데미안 허스트, 줄리안 오피, 사라 루카스, 게리 흄,

트레이시 에민 등 ‘영국의 젊은 예술가’ (yBa)들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크레이그-마틴은 런던 로완 갤러리(Rowan Gallery)(1969), 화이트채플 갤러리(Whitechapel Gallery)(1989), 아일랜드 현대미술관(Irish Museum of Modern Art, Dublin)(2006), 상해 히말라야 미술관(Shanghai Himalayas Museum)(2015), 서펜타인 갤러리(Serpentine Gallery)(2015) 등 유수의 미술기관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시드니 비엔날레(1990), 이스탄불 비엔날레(2009), 상파울루 비엔날레(1998: 제24회, 영국 대표로 출전, 2010) 등 수많은 비엔날레에 참여하였다. 작품의 주요 소장처로는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런던 테이트(Tate), 파리龐피두센터(Centre Pompidou) 등이 있다. 작가는 영국 및 세계 현대미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업적을 인정받아 2001년 대영제국훈장(CBE: Commander of British Empire)을, 이어 2016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수여받으며 영국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했다.

## &lt;작품 세계&gt;

## 1. 1960년대와 70년대

‘예술은 주변의 오브제를 변화시킴으로써 삶을 새롭게 보게 하는 것’이라는 예술관을 바탕으로 작업을 시작한 작가는 1960년대 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친숙한 사물들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1973년 제작된 작품 ‘참나무 (An Oak Tree)’는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마르셀 뒤샹의 개념을 반영한 설치 작품으로, 이는 현재까지 영국 개념미술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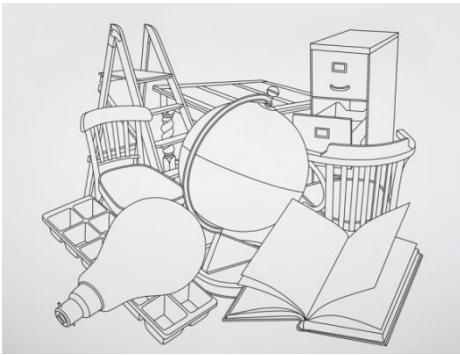
평범한 선반과 그 위에 놓여진 유리잔은, 보여지는 사물이 사실은 참나무라는 작가의 설명글을 통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 되었다.



*An Oak Tree*, 1973, Glass, water, shelf, printed material, Dimensions variable

## 2.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사물에서 사물의 이미지로, 구상과 추상의 결합으로



*Reading (with globe)*, 1980, Tape on w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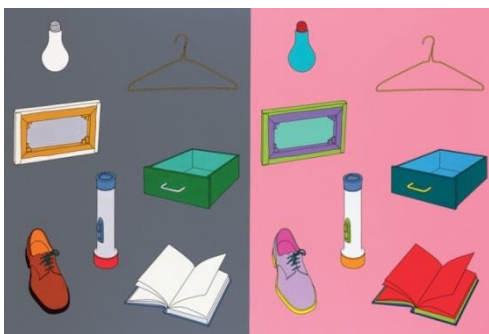
*French Trousers*, 1984

1970년대 말은 크레이그-마틴을 상징하는 작품 세계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때로, 작가는 실제 사물이 아닌 비현실적으로 재구성된 그래픽적 이미지의 윤곽선만을 검정 테이프를 사용, 벽면에 드로잉하며 회화의 고전적 문법을 해체한다. 실제 같은 환영을 일으키는 전통적 의미의 '재현'과는 다른 의미인 것이다. 작가는 때로 사물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관람자에게 익숙한 원근법 개념을 뒤흔들기도 한다.

## 3.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990년대는 군더더기 없는 '크레이그-마틴 식 회화'가 등장하는 시기로 페인팅이 첫 선을 보임과 동시에 작가의 색면에 대한 관심은 극대화된다. 크레이그-마틴은 십수 년간 컴퓨터로 도안한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한 이미지를 배열하고, 즐겨 사용하는 색상 중 몇 가지를 골라 색면을 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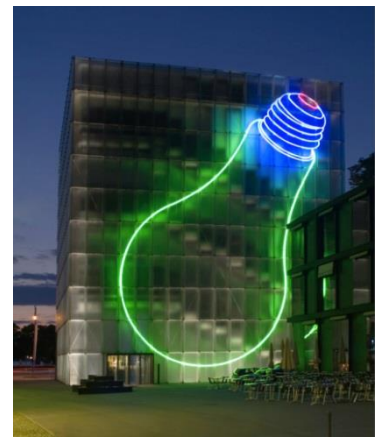
1993년, 마크 볼드윈의 발레 무대 세트와 무대 의상을 디자인하면서 대형 벽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크레이그-마틴은 이후 여러 공공 설치 및 벽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작가는 이 시기 수많은 주요 장소의 대규모 공공 커미션 프로젝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뉴욕현대미술관, 테이트 등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최하며 전성기를 맞이한다.



*Now and Then*, 1997, 캔버스에 아크릴, 182.9 x 274.3 cm



하노버 미술관 설치,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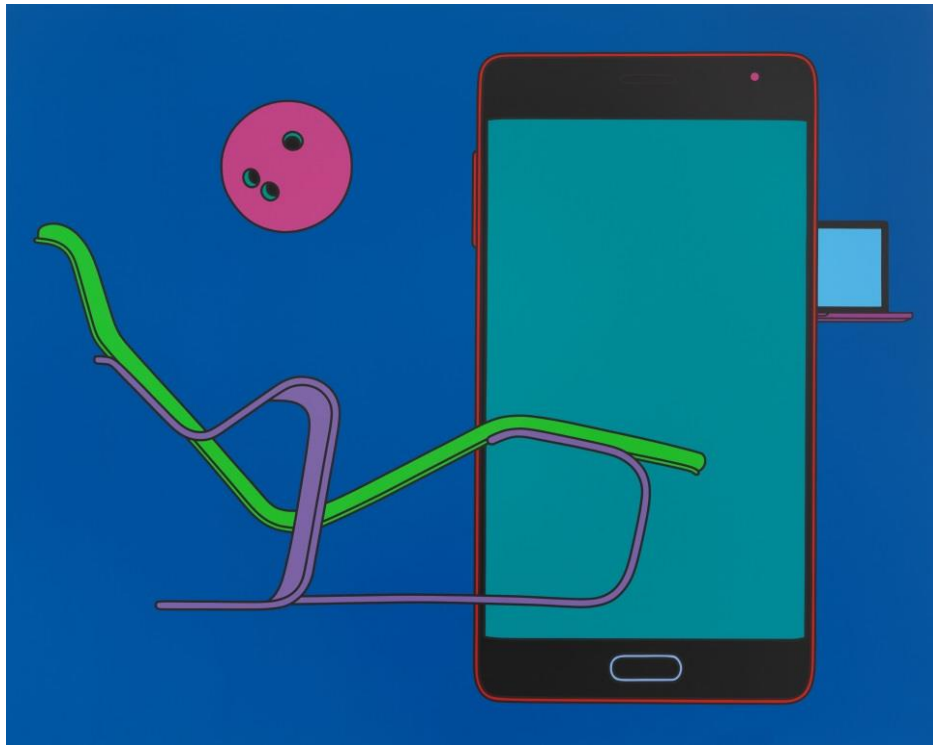


Kunsthau Bregenz, 2006

## 3.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크레이그-마틴은 5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오브제들을 소재로 사용하여 드로잉, 조각, 설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 방식을 통해 미술의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넘나든다. 간결한 형태와 원색적 화면의 결합은 2000년대 작가의 회화 속 더욱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나며, 작가는 캔버스가 아닌 알루미늄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작가는 전형적인 브러시 대신 4인치 롤러를 사용하여 채색한다. 2000년대 중반 등장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해 만든 문자회화 작업부터,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 오브제를 극도로 클로즈업한 작업까지, 작가는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상과 예술의 경계선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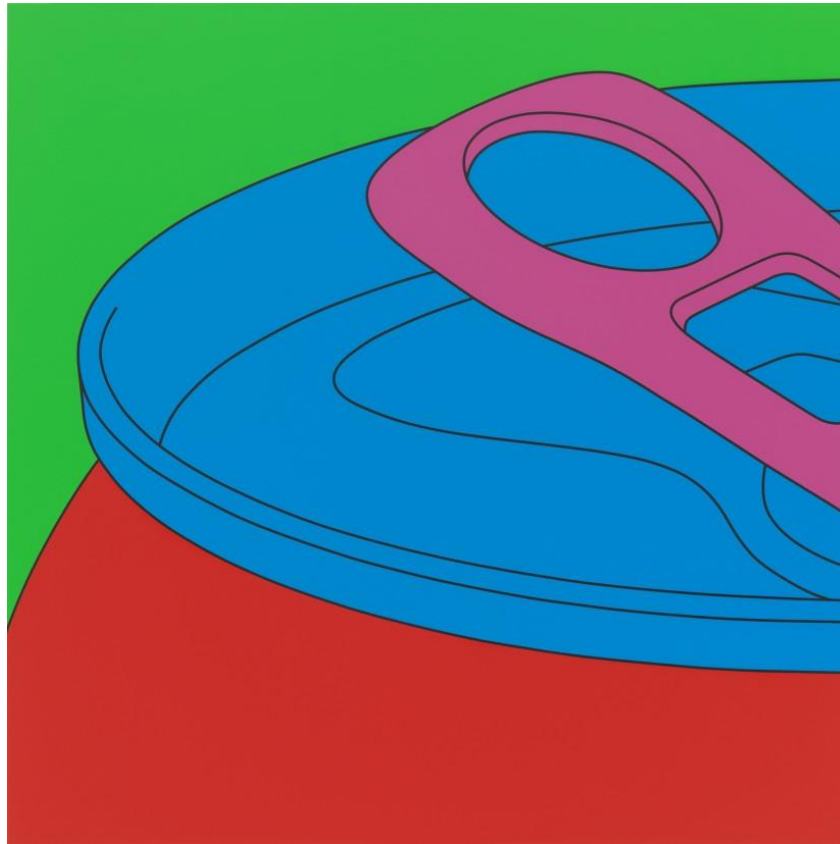
<출품작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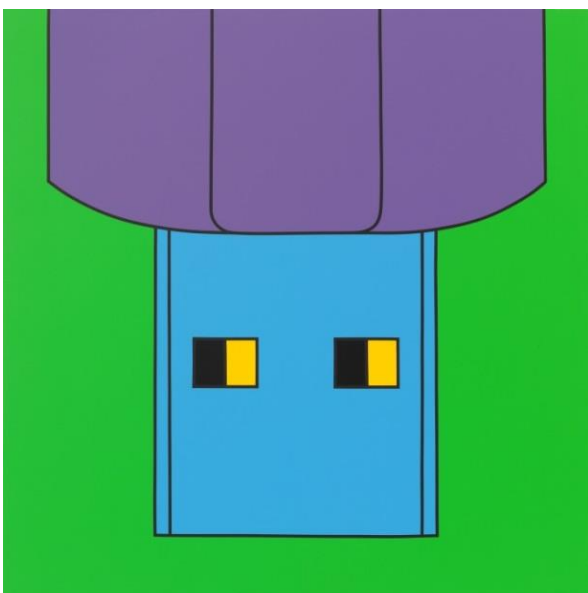
흔한 일상 (안락의자와 함께), 2017, 알루미늄에 아크릴, 200x250cm  
*Commonplace (with chaise), 2017, Acrylic on aluminium, 200x2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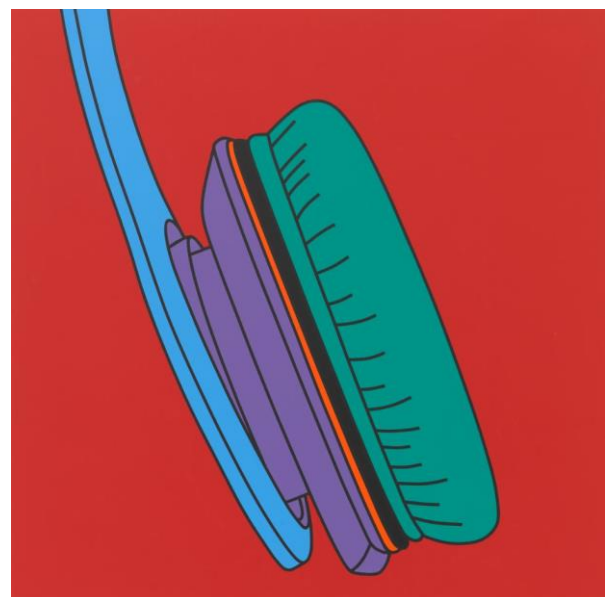
무제 (그룹 1), 2017, 알루미늄에 아크릴, 200x250cm  
*Untitled (group 1), 2017, Acrylic on aluminium, 200x2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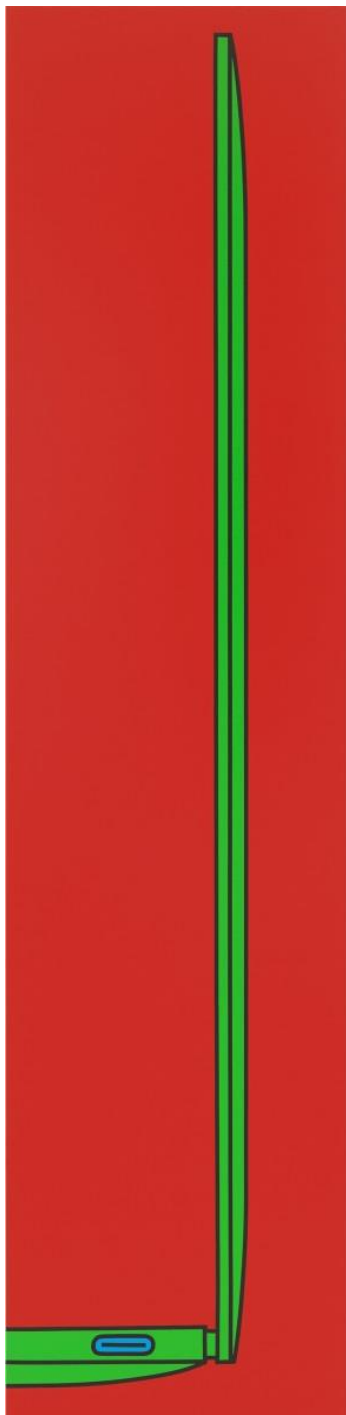
무제 (캔 부분), 2016, 알루미늄에 아크릴, 195x195cm  
*Untitled (can fragment), 2016, Acrylic on aluminium, 195x195cm*



무제 (메모리 스틱 부분, 초록), 2017  
 알루미늄에 아크릴, 90x90cm  
*Untitled (memory stick fragment green), 2017*  
 Acrylic on aluminium, 90x9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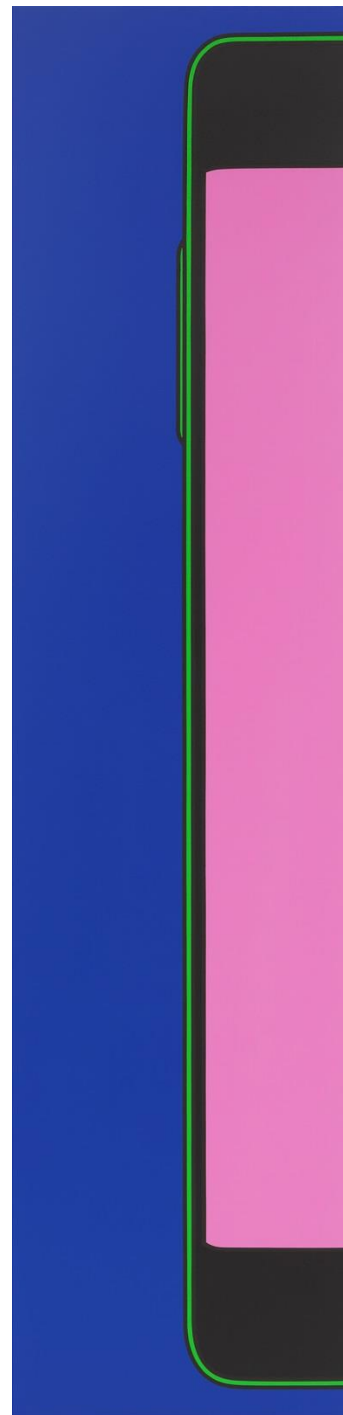
무제 (헤드폰 부분), 2017  
 알루미늄에 아크릴, 60x60cm  
*Untitled (headphone fragment), 2017,*  
 Acrylic on aluminium, 60x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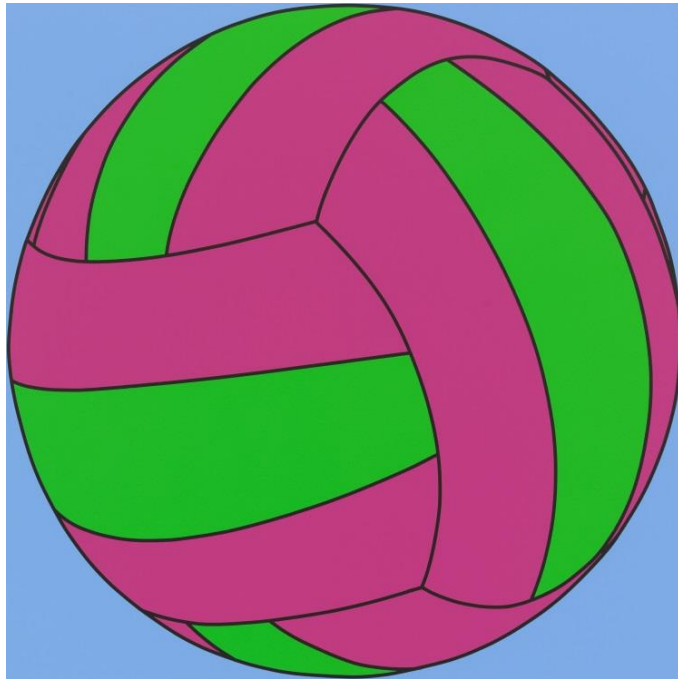
무제 (맥북에어-세로), 2016,  
알루미늄에 아크릴, 250x60cm  
*Untitled (air vertical), 2016,  
Acrylic on aluminium, 250x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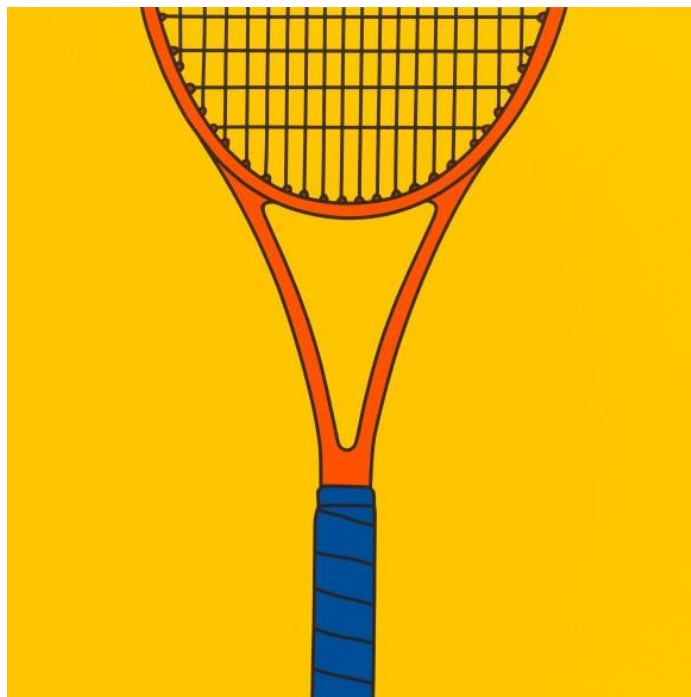
무제 (코르크 마개뽑이-세로), 2016,  
알루미늄에 아크릴, 250x60cm  
*Untitled (corkscrew vertical), 2016,  
Acrylic on aluminium, 250x60cm*



무제 (갤럭시-세로), 2016,  
알루미늄에 아크릴, 250x60cm  
*Untitled (galaxy vertical), 2016,  
Acrylic on aluminium, 250x60cm*



무제 (배구공, 파랑), 2017, 알루미늄에 아크릴, 60x60cm  
*Untitled (volleyball blue), 2017, Acrylic on aluminium, 60x60cm*



무제 (테니스 채 부분, 노랑), 2017, 알루미늄에 아크릴, 61x61cm  
*Untitled (tennis racquet fragment yellow), 2017, Acrylic on aluminium, 61x61cm*

**<전시 서문>** (\*부분 발췌만이 가능하며, 일정분량 이상 사용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현대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완벽한 세계, 손 닿을 듯 닿지 않는.

마르코 리빙스턴

*‘내가 추구하는 것은 명료함이다. 그럼에도 내 마음은 매번 모순과 복잡함에 이끌린다.’*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엔리케 준코사와의 대화 중에서. 『Michael Craig-Martin: Conference』와딩턴 갤러리, 2000년에 인용.

마이클 크레이그-마틴은 1960년대 중반 미니멀리즘과 개념주의적 경향을 특징으로 하는 그의 작업 초기단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지저분함을 반영하는 한편 그 자체로 완전하며 논리와 이성 지배하는 체계로서의 세계, 즉 자기충족적인 완벽한 세계가 가지고 있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특성에 대해 탐구해왔다. 이 시기에 제작된 그의 조각적 구조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능위주의 일상용품이나 매우 단순하며 흰색 또는 회색으로 칠해진 상자 모양 용기의 형태를 모방하고 있는데, 이 작품들에서 전면에 내세워진 요소는 기하학과 순수성purity임을 알 수 있다. 반세기보다 더 오래 전 세잔이 가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원뿔, 원통 및 구라는 세가지 요소로 재해석하려 했다면, 크레이그-마틴의 재해석에서의 간결성은 한 발 크게 더 나아간다. 그는 대상을 묘사하려는 시도 대신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을 이상화하면서 그 형태들과 평행선상에 있는 어떤 우주를 창조하고자 했다. 크레이그-마틴은 플라톤식 이상Platonic Ideal과 연계되는 개념들을 가지고 유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 일상행위들 및 가장 기초적인 사물의 범주들로 자신의 소재를 제한하려 노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도 모르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표현으로 매번 발길을 되돌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던 것이다.

크레이그-마틴의 초기작품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반복적으로 권유한다. 그는 가장 친숙한 일상용품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자신의 철학적인 시각적visual 관점들을 제시했고, 이러한 그의 접근 방식은 중력의 법칙에 대한 경험과 같이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쌓아온 지식을 깔보는 듯한 작품들을 마주할 때 관람객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 시점까지의 그의 작업은 묘사라는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대량생산된 레디메이드 사물들을 다양한 조합으로 제시하는 모더니스트(보다 상세히는 뒤상식) 방식에 그 기반을 두었다. 따라서 1970년대 말, 자신의 미술적 정체성을 이미지생산자로서 재설정하겠다는 크레이그-마틴의 결정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급작스런 노선변화—이는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그림생산자들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지위를 견고히 하기도 했다—는 엄격한 규칙과 원칙에 근거하여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에 재차 질문을 제기하며 점진적인 검토의 과정을 거치는 그만의 특유한 태도의 산물이었다. 순수미술전통의 경계 밖에 존재하는 절차들을 탐구하는 데 관심의 끈을 늦추지 않으며 자신의 미술을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와 통합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던 그는 1970년대 중반 이미 거울, 클립보드, 가대식 탁자 등 대량생산된 사물들을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펼쳐진 책 위에 위치시킨 <Reading Light>(1975년)와 같은 친숙한 사물들을 네온 튜브를 이용해 단순한 선묘로 재구성하였다. 무(無)로 와해되는 물질, 변화를 거듭하여 신기루처럼 우리의 시각영역 내를 떠다니는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덧없음과 무상(無常)함에 대한 깊은 관심은 그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즉 새로운 것을 접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전 작품의 범위로 설정해놓은 관습들을 흔쾌히 파괴하는 쪽으로 옮겨 갔던 것이다. 급속적인 형식, 결여된 색채, 반환경주의적이자 지적이면서 지극히 반낭만주의적이었던 1965년 자신의 미술이 반세기 이후 관람객을 순수한 감각의 세계로 유혹하면서 호사스럽고 화려하며 명백한 시각적 스펙터클을 생산하는 쪽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놀라워했을 것이다.

크레이그-마틴이 1970년대 말 제작하기 시작하여 런던 소재의 로완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1978년)에서 처음 선보인 벽드로잉들을

보면 그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기발함과 재치, 그래픽적 요소와 더불어 고갈될 줄 모르는 열정과 상상력을 이용하여 일상용품들을 정교하게 재현하기 위한 하나의 선적 언어를 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묘사 양식의 첫 번째 공식은 바로 그 해에 출현했는데, 일련의 벽에 거는 '회화들' 중 하나인 <Painting and Picturing>을 보면, 고물상에서 발견한 무명 아마추어의 그림이 텅 빈 캔버스의 모퉁이에 붙여져 있다. 이 경우에 국한하여 크레이그-마틴은 그 구성을 자신의 캔버스로 연장시켰는데, 즉 아마추어의 그림을 선으로 쫓아가며 캔버스 표면 위에 투사시키고 일정한 폭의 가는 검정테이프로 그 선들을 충실히 복제했다. 전자회로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 1960년대에 발명된 이 테이프는 크레이그-마틴에게 있어 새로운 매체였으며 이가 가져온 가능성들은 하나의 계시라 할 만한 것이었다. 그는 가까이에서 있어 매일 마주하며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워진, 눈에 거의 띄이지 않을 정도로 친숙한 생활용품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세테이트 종이에 검정테이프로 오브제들을 옮겨 베낌으로써 그것들을 가능한 한 비인간적인 시각적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 극히 환원적이고 균등하며 '양식 없는 style-less' 재현의 방법은 도면, 기계도해, 어린이용 색칠 책 그리고 여타 동일한 정도로 '무기교적인' 묘사형식들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한 것이었다. 소비문화와 물개성화된 재현형식들과 자신을 의도적으로 동일한 맥락 위에 위치시켰던 팝아트는 1960년대에 그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이 시기 크레이그-마틴은 팝아트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이미지메이킹과 '스펙터클의 사회'라는 주제에 새로운 열정을 가지게 된 지금, 팝아트는 동시대적 삶에 대한 미술적 어휘 개발에 있어 그에게 유용한 참조사항이자 영감의 대상이 되었다. 자신의 라인트레이싱 line tracing을 벽에 투사시키고, 많은 경우 아세테이트 종이를 여러 겹으로 겹치는 방법을 통해 그는 이미지를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크게 재제작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이미지들을 결합하여 각각의 개별적 구성요소들이 암시하는 엄격한 논리를 꺾어버리곤 하는 환등 같은 섬망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의 이미지를 자신만의 특유의 방법으로 결합시키고 겹치게 하여 그 이미지들이 허공에서 상호 침투하도록 만듦으로써 어떤 꿈 같은 상태를 제시하고자 했는데, 미국 팝아트 대가들 중 한 사람인 제임스 로젠퀼스트의 대형광고판 크기의 초현실주의적 회화작품들이 이러한 그의 결심을 강화시키는 데 박차를 가한 듯 보인다. 그의 절제된 선적 언어가 가지는 익명성은 역설적이게도 크레이그-마틴 고유의 것임을 역력히 드러낸다. 크레이그-마틴이 이러한 속기적 언어로 제작하기 시작한 금속 및 캔버스 부조들을 보면 그가 색채를 절제적이거나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로부터 겨우 5년 뒤의 일이었다. 몇 년 후 그가 오늘날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AD(컴퓨터 지원 설계)보다 덜 정교한 버전의 CAD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디지털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시점에 이르면서 그의 색채는 훨씬 더 강렬하고 대담해지는데, 이는 현재 크레이그-마틴의 트레이드마크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은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껏 쓰고 있지만 그가 수많은 색들과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따라 하나의 색을 골라야 하는 고통을 처음 마주했을 때 느낀 위압적인 힘에 그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그는 그러한 우려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때로는 무작위성을 반갑게 여기며 가장 농축되고 날카로운 색채들을 선택하여 가장 의외의 방식으로 결합하고, 때로는 하나의 그림에 다양한 색들을 사용하기도, 또 때로는 거대한 표면을 하나의 색으로 흘려 넘치게 하기도 했다. 그가 색채의 풍부함에 빠져들면 들수록 그의 미술은 팝아트의 전형에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그는 이 미술운동과는 거리를 유지했는데, 즉 그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평범한 일상사물들이라는 소재를 고수했던 것이다. 많은 경우 사물들은 각각의 그림마다 다른 맥락과 여러 조합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작품들이 강렬히 드러내는 간결성과는 대조적이게도 그 형식은 매우 다양했다: 접착 테이프와 가정용 페인트로 제작한 벽화에서부터 아크릴물감을 사용한 알루미늄 패널까지,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부터 분말 코팅된 강철조각 또는 스크린 판화까지, 네온에서부터 소프트웨어를 갖춘 컴퓨터로 작동되는 LCD 모니터까지. 이러한 다양한 형식의 도입은 이미지가 하나의 색채에서 다른 색채로 계속해서 진화하며 변화를 거듭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대적 삶과 순수미술전통의 경계 밖에서 개발된 시각적 소통의 형식들을 아우르는 팝아트 고유의 특징을 재해석하는데 있어서의 크레이그-마틴의 탁월함은 첨단 기술의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그의 태도에 기인한다.

한동안 크레이그-마틴은 이미지의 선택에 있어 시대의 변화와는 상관없는 것들만을 고집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묘사하고 싶은 특정 사물 중 '최소한으로 디자인된'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물론 그 또한 이러한 욕구 자체가 역설적인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특정한 전구, 우산, 발판사다리 또는 서류함 등 그 어떤 사물이든 그 최초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재스퍼

존스는 조각 작품을 만드는 때 사용할 손전등을 사러 나갔는데, 그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려는 온갖 다양한 변형물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그렸던 '표준' 형태에 딱 들어맞는 것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크레이그-마틴 또한 유사한 딜레마에 빠졌다. 손전등이나 텅스텐 전구와 같은 존스적인 모티브를 그리려 시도했을 때 조차 말이다.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가 오디오 카세트, 텔레비전, 안전핀, 금속 쓰레기통, 메트로놈, 전화기 등 온갖 다양한 사물들을 손쉽게 묘사한다고 느껴지는데, 이는 그의 작업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친 조사와 증류 과정을 거친 결과물임을 역설한다. 그가 결국 그 각각의 사물에 대한 완벽한 표현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즉 그 각각의 '사물성'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지난 여러 해 동안, 크레이그-마틴은 어떤 특정 사물을 그릴 때마다 그 각각의 정확한 재현들을 여러 다른 포맷 및 새로운 조합으로 변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재사용해왔다. 그는 오브제를 정면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기계도면의 기술적 등축도법 투영도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시점에서 묘사함으로써, 각 이미지의 투명성과 가벼움을 유지함과 동시에 삼차원적 환영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이러한 여전히 개념적으로 양식 없는 모티브들은 매우 독특하고 개인적인 언어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그만의 언어는 그가 선택한 매체가 무엇이든 간에 그가 제작한 모든 작품을 누구나 그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2015년, 그는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가 제작한 선이미지line image들을 한데 모은 한정판 『Drawing』을 출판했다. 오른쪽 페이지 중앙에 홀로 자리잡은 각 이미지는 그 궁극적 형태를 보이며 품위 있고도 매우 정교한 간결성을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세기로 접어들지 얼마 되지 않아 크레이그-마틴은 자신의 이미지들이 소비주의문화와 어쩔 수 없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이제는 그 소비주의문화의 변화하는 속성을 그의 미술에서 다루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가 사용한 오브제들 중 어떤 것들—예를 들어 그가 사용했던 특정 TV—은 이제 시대에 뒤쳐진 것으로 인식되거나 어떤 시간의 틀 속에 갇혀 있음을, 심지어는 그가 두려워해 하지 않았던 노스텔지어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물들—예를 들자면 오디오카세트—은 적어도 젊은 소비층의 관점에서 보자면 더 이상 알아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거나 심지어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음을 인지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을 새것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 제조사들은 일부러 최첨단이 아닌 그 하위단계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디자인을 업데이트했다. 2000년대 초반 이러한 사실이 더 이상 저항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현실로 전면에 드러났고, 이에 크레이그-마틴도 이를 다루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그는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선적 언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모티브들을 만들어 내는 데 착수했는데, 이 새로운 사물들 중에 그는 특히 자신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들을 선호했다. 한때 그는 '중거나 나쁜 취향' 또는 '미적 즐거움'이 의도적으로 부재된 레디메이드들을 찾아내는 뒤상의 철학을 따르고자 했었다. 하지만 미적 판단(미가 가져다 주는 쾌와 관련된 일)을 실용성에 대한 평가와 결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 크레이그-마틴은 에어콘 의자, 아이폰, 애플 파워북 또는 캐논 익서스 카메라 등 그 자신이 구매하는 것을 그리고 그의 작품에서 이 선택된 사물들을 정확하게 복제해야 하는 것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시장에 선보여진 무선마우스, 절전전구, 로봇 청소기 등 우리 시대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물들이 그의 미술에서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갤러리현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를 위해 크레이그-마틴이 제작한 작품들—모두 무제이지만 괄호 안에 각 이미지를 기술하는 부제가 달려있다—중에는 아주 새로운 포맷으로 구성된 일련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높이가 250cm에 달하는 매우 길쭉한 형태를 가진 알루미늄 위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한 여섯 개의 회화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작품은 그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인 1960년대에 등장한 케네스 놀란드와 같은 미국 화가들의 추상회화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그 회화들의 간결성은 우산이나 코르크 마개뿔이, 절전용 전구나 휴대전화 같이 오래되거나 새로운 사물들을 과감하게 절단하여 묘사한 것들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외의 새로운 회화작품들 중 여러 개가 한 번의 길이가 60cm인 작품부터 200cm의 길이까지 다양한 표면의 정사각형으로 나타나는데 아마도 이는 조셉 앨버스의 <Homage to the Square> 연작에 대한 크레이그-마틴의 오마주인 듯 하다. 조셉 앨버스는 크레이그-마틴이 학부생으로 가기 바로 전 여러 해에 걸쳐 예일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었는데, 그의 철저한 교수방법은 크레이그-마틴이 형식의 문제를 자신의 작업의

초점으로 삼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전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샌들, 바퀴 달린 여행가방, 펼쳐진 노트북, 책, 전구, 후추통 등 몇몇 모티브들은 농도 짙은 색으로 균등하게 칠해진 캔버스의 중앙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방식이 발하는 삭막하고 엄연한 효과는 비잔틴 아이콘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숭배의 대상들은 이제 21세기의 속화(俗化)된 정체감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성모 마리아, 예수 및 성인들에서 오늘날 우리가 자신을 정의하는 데 끌어들이는 물신숭배화된 제품들로 바뀌어 있을 뿐이다. 또 다른 무리의 작품들은 현대의 일상생활을 암시하는 다양한 모티브들을 보여주는데, 아주 작은 메모리 스틱부터 선글라스, 테니스라켓, 차량운전대 등 사물들은 실제로는 크기가 많이 다르지만 마치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극도의 클로즈업에서처럼 끝부분을 잘라버리고 몸통만 보여주는 파편들로 제시되고 있다. 크레이그-마틴의 여러 다른 작품들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전형적인 모더니스트 디자인들(게리트 리트벨트나 루드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디자인한 유명한 의자들)과 무명 디자이너들의 지극히 친숙한 사물들의 디자인들이 동등하게 제시되고 있다. 자신만의 미묘한 감상을 바탕으로 크레이그-마틴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유명디자이너들과 현대세계의 풍경을 정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름없는 영웅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기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크레이그-마틴이 여전히 명확성과 직접성을 만족시키는 표면상 객관적인 언어로 자신의 묘사를 암호화하면서도 그 나름의 주관성에 투항한 것은 새로운 세기에 들어와서의 일이라고 할 것이다. 완벽을 향한 그의 추구는 여전히 그 강도를 유지하고 있고, 인간의 행동, 호기심 및 변화에 대한 갈망을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 또한 그러하다. 그의 컴퓨터에 기반한 조명 박스들이 매 순간 새로운 경험과 흥미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선사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스펙터클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의 미술 전반 또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식으로 갈아입기를 반복하고,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변화하는 상상적 반응으로 매번 거듭나고 있다.

© Marco Livingstone 2017

이 글은 『Michael Craig-Martin: Transience』, Serpentine Gallery, London, with Koenig Books, 25 November 2015 – 14 February 2016 에 발표된 글을 수정한 것이다.

## <작가약력>

1941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  
 1959-61 포드햄 대학교, 뉴욕, 미국  
 1961-63 BA 예일대학교, 뉴헤이븐, 미국  
 1964-66 MFA 예일대학교, 뉴헤이븐, 미국  
 현재 런던에서 거주 및 활동 중

## 개인전

2017 *올 인 올*, 갤러리현대, 서울  
*브라이트 스파크*, 페닌슐라호텔, 홍콩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2016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현재*, 갤러리 안드레스 탈만, 취리히, 스위스  
 2015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무상*, 서펜타인 갤러리, 런던, 영국  
*MTV 리:디파인*, 고스-마이클 재단, 댈러스, 미국  
*지금*, 상하이 히말라야 미술관, 상하이, 중국  
 2014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가고시안 갤러리, 데이비스 스트리트, 런던, 영국  
*우리 시대의 물건들*, 알란 크리스티아 갤러리, 런던, 영국

-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가고시안 갤러리, 홍콩, 중국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채즈워스 하우스, 더비셔, 영국
- 2013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적은 것이 아직 더 많은 것, 하우스에스터 미술관, 크레펠트, 독일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1967-1992, 최근 그림과 판화, 갤러리 안드레스 탈만, 취리히, 스위스
- 2012 마이클 크레이그-마틴의 알파벳, 럭비 아트갤러리 앤 뮤지엄, 럭비, 영국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드로잉, 루터 W. 브래디 아트 갤러리, 조지워싱턴 대학교, 워싱턴DC; 레딩 공립미술관, 레딩, 미국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단어, 이미지, 열망, 갤러리현대, 서울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판화와 드로잉, 갤러리 I.D, 제네바, 스위스
- 2011 드로잉 1967-2002, 알란 크리스티아 갤러리, 런던, 영국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새로운 그림과 조각, 뉴아트센터, 로슈 코트 갤러리 & 조각 공원, 윌트셔, 영국
- 2010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가고시안 갤러리, 아테네, 그리스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고스-마이클 재단, 델러스, 미국
- 2009 마이클 크레이그-마틴—새로운 작품들, 갤러리 하스&푸흐스, 베를린, 독일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PKM 갤러리, 서울
- 2008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알파벳과 일몰, 알란 크리스티아 갤러리, 런던, 영국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더 컬럼스 갤러리, 서울
- 2007 A를 위한 우산, 가고시안 갤러리, 브리타니아 스트리트, 런던, 영국
- 2006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뉴아트센터, 윌트셔, 영국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생활의 기호들, 쿤스트하우스 브레겐츠, 브레겐츠, 오스트리아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1964-2006,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더블린, 아일랜드  
 기후 변화, 르 마가쟁 국립현대미술센터, 그르노블, 프랑스
- 2005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갤러리 하스&푸흐스, 베를린, 독일  
 아르프 / 크레이그-마틴 / 아르프, 아르프 미술관, 레마겐, 독일
- 2004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표면화하기, 밀턴 케인스 아트 갤러리, 밀턴 케인스, 영국  
 피에로, 쇠라, 폴리오 해체하기, 알란 크리스티아 갤러리, 런던, 영국
- 2003 작업공간, 갤러리 유딘, 취리히, 스위스  
 폭풍의 눈, 가고시안 갤러리, 뉴욕, 미국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서미갤러리, 서울
- 2002 들숨/날숨,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 맨체스터, 영국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 2001 풍경화, 더글라스 하이드 갤러리, 더블린, 아일랜드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산다는 것, 신트라 현대미술관-베라르도 컬렉션, 신트라, 포르투갈
- 2000 회담, 워딩턴 갤러리, 런던, 영국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발렌시아 현대미술관, 발렌시아, 스페인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채워짐/비워짐, fig-1, 런던, 영국
- 1999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그리고 때로 시가는 그저 시가일 뿐,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슈투트가르트, 독일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모던스타트: -것들, 뉴욕현대미술관, 뉴욕, 미국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공동의 역사, 피터 블룸 갤러리, 뉴욕, 미국
- 1998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항상 지금, 쿤스트페어라인, 하노버, 독일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제24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브리티시 파빌리온, 이비라푸에라 공원, 상파울루, 브라질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마리오 디아코노 갤러리, 보스턴, 미국
- 1997 순수와 경험, 워딩턴 갤러리, 런던, 영국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판화, 알란 크리스티아 갤러리, 런던, 영국

- 마이클 크레이그-마틴과 레이몬드 페티본*, 라인란드 쿤스트페어라인, 뒤셀도르프, 독일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 1995 시카고 현대미술관, 시카고, 미국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 1994 *개인공간*, 공적공간, 풍피두 센터, 파리, 프랑스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우치주미술관, 로지, 폴란드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오크 트리*, 폭살 갤러리, 바르샤바, 폴란드
- 1993 *거주하기*, 로마 영국학교, 로마, 이탈리아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갤러리 클로딘 파피용, 파리, 프랑스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집에서*, 워딩턴 갤러리, 런던, 영국
- 1992 워딩턴 갤러리, 런던, 영국
- 1991 *프로젝트 27*, 뉴욕현대미술관, 뉴욕, 미국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데이비드 놀란 갤러리, 뉴욕, 미국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앙드레 말로 미술관, 르 아브르, 프랑스
- 1990 갤러리 클로딘 파피용, 파리, 프랑스
- 1989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회고전: 1968-1989*, 화이트채플 갤러리, 런던, 영국
- 1988 워딩턴 갤러리, 런던, 영국
- 1985 워딩턴 갤러리, 런던, 영국
- 1984 워딩턴 & 쉐 갤러리, 토론토, 캐나다
- 1982 *제 5회 인도 트리엔날레*, 뉴델리, 인도  
워딩턴 갤러리, 런던, 영국
- 1981 현대미술관,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 1980 갤러리 바마, 파리, 프랑스
- 1979 폭살 갤러리, 바르샤바, 폴란드  
갤러리아 아쿠무라토리, 포즈난, 폴란드  
올리버 다울링 갤러리, 더블린, 아일랜드
- 1978 갤러리 디셈버, 뒤셀도르프, 독일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10개의 작품 1970-77*, 브리즈번 현대미술관, 브리즈번, 호주
- 1977 올리버 다울링 갤러리, 더블린, 아일랜드
- 1976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1966-1975*, 턴파이크 갤러리, 레이, 영국. 영국 순회 (-1977년)
- 1974 갤러리 디셈버, 뮌스터, 독일
- 1971 아르놀피니 갤러리, 브리스톨, 영국  
리차드 드마르코 갤러리,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 1969 로완 갤러리, 런던, 영국 (이 후: 1970, 1972, 1973, 1974, 1975, 1978, 1980)

#### 주요 단체전

- 2017 *포크스톤 트리엔날레 2017*, 포크스톤, 영국  
*공간을 염두에 두고*, 트리먼히어 조각공원, 펜젠스, 영국  
*은유로서의 건축*, 그리핀 갤러리, 런던, 영국
- 2016 *에디션 & 에퀴지션 2015*, 알란 크리스티아 갤러리, 런던, 영국  
*파운드*, 파운드링 박물관, 런던, 영국  
*메이드 인 브리튼*, 갤러리 보이세레시, 쾰른, 독일
- 2015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에드문트 드왈, 리차드 세라 & 이드리스 칸*, 알란 크리스티아 갤러리, 런던, 영국  
*아트주이드 국제 조각비엔날레*,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15여름전시회*, 영국왕립미술원, 런던, 영국  
*영국의 예술가들*, 갤러리 안드레스 탈만, 취리히, 스위스  
*개관 20주년 기념 전시*, 알란 크리스티아 갤러리, 런던, 영국

- 헬로우 월스, 글래드스톤 갤러리, 뉴욕, 미국  
 불면-역사와 현대 미술 속 침대, 21세기 하우스, 빈, 오스트리아  
 2014 포스트 팝: 동양, 서양과 만나다, 사치 갤러리, 런던, 영국  
 에디션 & 에퀴지션 2013, 알란 크리스티아 갤러리, 런던, 영국  
 강렬한 독창성, 페이스 갤러리, 뉴욕, 미국  
 분해된 정원, 가고시안 갤러리, 르 부르제, 파리, 프랑스  
 클리어, 가고시안 갤러리, 베버리힐즈, 미국  
 2013 신소장품전, 스코틀랜드 국립현대미술관,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열셋, 알란 크리스티아 갤러리, 런던, 영국  
 예술이 도처에, 다양한 장소, 영국  
 프레자일, 폰다치오네 조르조 치니, 베네치아, 이탈리아  
 영국왕립미술원 전시, 햇필드 하우스, 하트퍼드셔, 영국  
 2012 마음을 벗어난 시간,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더블린, 아일랜드  
 쿨 브리타니아, 갤러리현대, 서울  
 2011 회화의 무질서, 테이트 갤러리 세인트아이브스, 콘월, 영국  
 상상해보다, 로랑 델레예 갤러리, 런던, 영국  
 2011여름전시회, 영국왕립미술원, 런던, 영국  
 스몰, 미디엄, 라지, 르 돈종 데 베즈, 베즈, 프랑스  
 모던: 60년대와 70년대,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더블린, 아일랜드  
 2010 예술, 갤러리 하스&푸흐스, 베를린, 독일  
 제29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상파울루, 브라질  
 2009 2009여름전시회, 영국왕립미술원, 런던, 영국  
 제11회 국제 이스탄불 비엔날레, 안트레포 No. 3, 이스탄불, 터키  
 2008 우아한 시체,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더블린, 아일랜드  
 아트퓨처스 2008, 블룸버그 스페이스, 런던, 영국  
 정신을 위한 예술: USB 아트 컬렉션, 모리 아트뮤지엄, 도쿄, 일본  
 장거리 정보, 뱅골 파인 아트갤러리, 다카, 방글라데시  
 벨라스케스: 시녀들 잇기, 피카소 미술관, 바르셀로나, 스페인  
 2007 물질 세계에서 산다는 것-20세기와 그 후의 미술이 담는 것, 국립신미술관, 도쿄, 일본  
 2006 유럽 눈 여겨보기, 뉴욕현대미술관, 뉴욕, 미국  
 제6회 상하이 비엔날레: 하이퍼디자인, 상하이, 중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 영국미술 60년, 예술위원회 컬렉션, 헤이워드 갤러리, 런던, 영국  
 마치 마법처럼, 베들레헴 평화센터, 베들레헴, 팔레스타인  
 전원 켜기: 라이트 박스와 디지털 애니메이션, 알란 크리스티아 갤러리, 런던, 영국  
 2005 페인팅 더 예지, 갤러리현대, 서울  
 워크 온 페이퍼, 가고시안 갤러리, 베벌리힐즈, 미국  
 의식을 높이다, 테이트 모던, 런던, 영국  
 폭풍의 눈,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더블린, 아일랜드  
 2004 신을 보는 100인의 작가들, 샌프란시스코 현대유대박물관, 샌프란시스코; (2006년까지 순회) 라구나 미술관, 라  
 구나 비치; 버지니아 현대미술관, 버지니아비치; 프리드먼 아트 갤러리, 레딩; 치즈우드 미술관, 내슈빌, 미국;  
 현대미술학회, 런던, 영국  
 2002 승객, 아스트룹 피언리 현대미술관, 오슬로, 노르웨이  
 20세기의 영국 미술, 볼프스부르크 미술관, 볼프스부르크, 독일  
 2001 렉스 갤러리, 런던, 영국  
 예일 미술대학교, 뉴헤이븐, 미국

- 2000 *너의 머릿속에 산다는 것*, 화이트채플 갤러리, 런던, 영국; 시아두 현대미술관, 리스본, 포르투갈  
*지성*, 뉴 브리티시 아트 2000, 테이트 미술관, 런던, 영국  
*분명한 사물*, 하우스 데어 쿤스트, 뮌헨, 독일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  
*머리 속의 세계*, 파리 시립 현대미술관, 파리, 프랑스  
*입장을 바꾸다: 아일랜드 미술 1950-2000*,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더블린, 아일랜드  
*00: 드로잉 2000*, 바바라 글래드스톤 갤러리, 뉴욕, 미국  
*드로잉 그리고 사진*, 메튜 맥스 갤러리, 뉴욕, 미국
- 1999 *주요작품전*, 알란 크리스티아 갤러리, 런던, 영국
- 1998 *우아한 금욕*, 워딩턴 갤러리, 런던, 영국  
*화가의 정원*, 자드킨 미술관, 파리, 프랑스  
*2000년대까지*, 사우샘프턴 시립미술관, 사우샘프턴, 영국  
*집속탄*, 모리슨 저드 갤러리, 런던, 영국
- 1997 *보물섬*, 칼로우스테 굴베키안 재단, 리스본, 포르투갈  
*날 따라오세요: 엘베 하류에 영국 미술*, 북스테후데 미술관, 슈타데, 독일  
*러브 호텔*, 캔버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순회전
- 1996 *세기의 영국 조각*, 주 드 품 국립 미술관, 파리, 프랑스
- 1995 *회화의 모험*, 뒤셀도르프 쿤스트페어라인, 뒤셀도르프; 쿤스트페어라인, 스투트가르트, 독일  
*선 그리기: 과거와 현재의 드로잉에 대한 재평가*, 사우샘프턴 시립미술관, 사우샘프턴, 영국  
*오픈 하우스*, 케틀스 야드 미술관, 케임브리지, 영국
- 1994 *벽에서 벽으로*, 서펜타인 갤러리, 런던, 영국
- 1993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리슨갤러리, 런던, 영국  
*여기 그리고 지금*, 서펜타인 갤러리, 런던, 영국
- 1991 *이상적 집을 위한 오브제: 팝아트의 유산*, 서펜타인 갤러리, 런던, 영국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마이클 랜디, 줄리안 오피*, 골드스미스대학교 갤러리, 런던, 영국
- 1990 *제8회 시드니 비엔날레: 레디메이드 부메랑*,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시드니, 호주  
*페인팅 전: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게리 흄, 크리스토퍼 윌, 카스텐 슈베르트*, 런던, 영국
- 1989 *조각*, 6 프레드릭 갤러리, 뮌헨, 독일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그렌빌 데이비, 줄리언 오피*, 리아 룸마 갤러리, 나폴리, 이탈리아
- 1988 *별이 빛나는 바다: 영국 조각 1968-1988*, 테이트, 리버풀, 영국  
*종게 나타나는 것은 좋은 나타냄이다*, 탄자 귀른네르트 갤러리, 쾰른, 독일
- 1987 *베슬: 조각, 유리, 세라믹*, 서펜타인 갤러리, 런던, 영국  
*벽 작업*, 코너하우스 갤러리, 맨체스터, 영국
- 1986 *오브제와 이미지 사이- 영국 현대 조각*, 벨라스케스 궁전, 마드리드, 스페인
- 1984 *1965-1972 - 태도가 형체가 되었을 때*, 케틀스 야드 미술관, 케임브리지, 영국; 프룻마켓 갤러리,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 1983 *뉴 아트*, 테이트 미술관, 런던, 영국
- 1982 *오늘날 영국 미술의 양상*, 도쿄도미술관, 도쿄, 일본. 일본 순회
- 1981 *말뚝*, 말뚝 미술관, 말뚝, 스웨덴  
*20세기의 영국 조각*, 화이트채플 갤러리, 런던, 영국
- 1979 *주목할만한 영국 미술*, 파리 시립 현대미술관, 파리, 프랑스  
*JP II*, 브뤼셀 왕립미술관, 브뤼셀, 벨기에
- 1977 *제6회 도큐멘타*, 카셀, 독일  
*헤이워드 연중 전시: 현재의 영국미술 II*, 헤이워드 갤러리, 런던, 영국
- 1976 *제2회 시드니 비엔날레*,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시드니, 호주
- 1975 *제9회 청년작가 비엔날레*, 파리, 프랑스

- 제13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영국 현대 드로잉, 상파울루, 브라질  
 브리타니아스타 75, 헬싱키 현대미술관, 헬싱키, 핀란드  
 피터 무어스 리버풀 프로젝트 3: 육체와 영혼, 워커 미술관, 런던, 영국  
 1974 최근 예술에서 보여지는 아이디어와 이미지, 시카고 미술관, 시카고, 미국  
 1973 생각하는 과정으로서의 예술, 서펜타인 갤러리, 런던, 영국  
 영국 작가 11인, 바덴바덴 주립미술관, 바덴바덴; 브레멘 국립미술관, 독일  
 헨리 무어에서 길버트 앤 조지까지, 브뤼셀 왕립미술관, 브뤼셀, 벨기에  
 1972 7가지 전시, 테이트 미술관, 런던, 영국  
 뉴 아트, 헤이워드 갤러리, 런던, 영국  
 1970 평론가의 선택, 아서 투스 & 선즈, 런던, 영국  
 모던스타트: -것들, 뉴욕현대미술관, 뉴욕, 미국

### 주요 소장처

아르프 미술관, 레마겐, 독일  
 영국예술협의회, 런던, 영국  
 호주 국립미술관, 캔버라, 호주  
 볼티모어 미술관, 볼티모어, 미국  
 베라르도 현대미술관, 리스본, 포르투갈  
 영국 문화원, 런던, 영국  
 부다페스트 현대미술관, 부다페스트, 헝가리  
 조르주 퐁피두 센터, 파리, 프랑스  
 마라모티 컬렉션, 레지오 에밀리아, 이탈리아  
 피츠윌리엄 박물관, 캠브리지, 영국  
 노르파드칼레 현대 미술 지방 재단, 칼레, 프랑스  
 헤이그 시립미술관, 헤이그, 네덜란드  
 하버드대학 미술관, 케임브리지, 미국  
 히스콧 아트프로젝트, 런던, 영국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더블린, 아일랜드  
 카디스트 예술재단, 파리, 프랑스  
 브레멘 미술관, 브레멘, 독일  
 리즈 시립미술관, 리즈, 영국  
 맨체스터 시티 아트 갤러리, 맨체스터, 영국  
 앙드레 말로 현대미술관, 르 아브르, 프랑스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미국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 마드리드, 스페인  
 퀸즈랜드 미술관, 브리즈번,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샘프턴 시립미술관, 사우샘프턴, 영국  
 신트라 현대미술관, 신트라, 포르투갈  
 스텔라 예술 재단, 모스크바, 러시아  
 스윈든 아트 갤러리, 스윈든, 영국  
 테이트, 런던, 영국  
 얼스터 미술관, 벨파스트, 북아일랜드  
 빅토리아 & 알버트 미술관, 런던, 영국  
 워커 미술관, 리버풀, 영국